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삼지연시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것과 관련하여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삼지연시를 현지도하시였다.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시키시려는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3단계로 나누어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여 온 삼지연시건설사업이 올해로 결속되게 된다.

삼지연시 읍지구완공에 이어 3단계로 읍 주변지구들과 농장들을 일신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방침에 따라 백두산밀영동, 리명수동, 신무성동, 5호물동동, 포태동과 중흥리, 홍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10여개 동, 리들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공공 및 생산건물, 교육시설, 상수도계통, 도로와 원림특화, 송전선계통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가 결속을 앞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들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들, 담사속영소와 중흥농장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도하시면서 삼지연시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건설대상들이 우리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대상들마다에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고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고결한 충성심과 강인한 의지, 리한 땀방울이 솟아있다고 하시면서 불리한 북방의 환경속에서도 방대한 공사를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해온 건설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읍지구뿐 아니라 시안의 여러 지구들과 농장들이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계속 강조했지만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태양의 성지인 삼지연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과 세대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송고한 이 투쟁을 통하여 수령께 영원히 충성하고 수령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담보가 더욱 확고히 마련되였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4년간에 걸친 삼지

연시건설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자력번영, 자력부강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철석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발전가능성이 실증되였다고 하시면서 당의 결정과 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구현한 삼지연시건설자들과 지원자들과 전국의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과 기준은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옳바른 방향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명확한 지침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지방이 변혁하는 새로운 시발을 열어놓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시켜 지방건설발전과 문명한 전사회건설

을 다그치는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한가지 하시면서 이러한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정책을 편향없이 정확히 추진해나가자면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현시기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선결적 문제로, 전략적과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도, 시, 군들에서 건설과 설계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과 국가적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시공단위들의 전문수준을 제고하고 건설감독기관들의 역할과 권능을 높여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중흥농장지구에 건설된 특색있는 농촌문화주택들과 리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한복의 그림같은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은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전변된 삼지연땅의 인민들이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며 몹시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시건설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대로 훌륭하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정든 고장에서 문명하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전체 삼지연시인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따듯이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 제 5 차 3 대 혁 명 선 구 자 대 회 개 막

##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건인불발의 대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앞선가고있는 3대혁명기술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도, 시, 군 당위원회 책임일꾼들, 성, 중앙기관 당책임일꾼들, 무력기관 정치일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관계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술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조선로동당의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과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에 대하여 밝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의 3대혁명화이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엄으로 으며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었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3대혁명 선구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서한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었다.

대회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은 조선로동당의



그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조강력한 무기로 사회주의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과 그 원인에 대하여서도 분석되었다.

보고자는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돌파하는 묘술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게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열의 속에 대회는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알아오신 불멸의 령도

## 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시어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오늘 공화국이 우리 국가에 일주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펼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수 있는것은 철세위인께서 안아오신 세상을 놀래

### 3 월 전 원 회 의

지금으로부터 8년전 공화국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은 세계가 주목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로선이 제시되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협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고있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자 적대세력들은 두가지 건설을 병진시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헐뜯었다. 당시 세계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것만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이 이번에 제시된 새 로선을 과연 관철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의문의 시선을 보내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하지만 오늘도 지구상 도처에서는 무장충돌과 전쟁의 화염이 계속

우는 눈부신 기적적승리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서는 이룩된 기적적승리들, 그 가운데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한 공화국의 병진로선이 안아온 경이적인 패승도 있다.

지혜와 묘술도 가르쳐주시었다.

이렇듯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있어 국방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3.18혁명》의 패승이 마련되고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장착용수소탄 시험의 완성성공에 이어 《11월대사변》을 맞이하여 세계에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라설수 있었다.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11월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그날 만리창공에 새겨지던 장쾌한 비행운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11월 29일 공화국에서는 대지를 박차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이 날아올랐다. 이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선언하시었다.

진정 공화국에서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4년만에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력사적대업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현재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운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화선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방력강화의 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그이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를 공화국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새무기시험사적이 진행될 때마다 위험천만한 사격현장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린 공화국인민들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위해 바치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다는 알지 못하고있다.

주제106(2017)년 2월의 어느날에는 먼동이 터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안고 발사되기로 진술하라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었고 또 언제인가는 위험천만한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시험출시시험과정을 보아주시고 성공이 너무도 기쁘시어 국방과학자를 업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게 새무기개발을 위해 그이께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시험사격장으로, 새무기조립장으로 나가시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성공으로의





#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는 10년

##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2)

###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제101(2012)년 3월 초 경애하는 김정일수령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당시 그이의 판문점시찰소식은 세상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봄이 왔건만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엔 12월의 차디찬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가시면 안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차를 눈물젖어 따라서도 약속하게 내려쬐어는 흰눈우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솜옷을 주저없이 벗어 갈아드셨던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해는 바뀌어도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은 가시여지지 않고 있었다. 인민들의 마음이 이리할진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며 그처럼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의 시찰길에 오르셨었다. 원래 판문점은 바람에 가랑잎이 흩날리어도 저도 모르게 방아쇠에 손이 가는 최대의 열점지역이다. 더우기 당시는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북침공격연습인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엄청난 도발사건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바로 이런 격전전야의 열점지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가셨었다. 그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셨고 하셔야 할 일도 많으셨건만 수도 평양으로 돌아 오셨다. 이곳,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서의 위험천만한 길을 달린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머나먼 그 길을 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 가득 차오른것은 무엇이었겠는가. 조국을 통일하는 일이라면 그에 무조건 동의하겠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민족번영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셨으리랴. 아버지수령님의 통일념원을 실현하시러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깎고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새겨보셨으리랴. 그리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 민족의 최대수원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하루빨리 이룩하실 불같은 맹세를 다지셨으리랴. 그렇다.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 시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헌신의 발현이었고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

민족분열의 비극을 단호히 끝장낼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발자취는 역사의 땅 판문점에도 어려어 있었다.

역설 기상의 분출이었다.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판문점경적속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었다. -정말 결심이 단호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하신 백두산혈통의 장군만이 단행할수 있는 장거리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분명 환한 대낮에 판문각로데에서 생안경을 들고 바라보시는 사진을 남겼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동시에 공중분해되는것같았다. -청청하늘에서 섬팡이 일

보시던 배포유한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백두산악과 같은 역설 담력기상을 지니신 령장의 모습을 보았고 그이의 손길아래 무궁번영할 민족의 밝은 래일을 보았다. 린 분열과 대결의 상정은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판문점은 의제에 의해 반세기 이상이나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의 가슴속아픔과 불행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절게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심신을 더해주시던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어려어는 친필비를 먼저 찾으셨었다. 그때로부터 아홉해가 흘러 갔다. 잊지 못할 3월의 그날 판문점에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의지는 날이 갈수록 약탈해지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겨레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 주셨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다시 침예한 대결과 긴장국면에 처해있다. 북남합의를 어느정도라도 성립시켜 리해하지 않고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업살책동에 맞장구를 쳐온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진정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애국의 발자취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역사의 땅 판문점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오늘 우리 겨레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온 겨레가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갈수 있는것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재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선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최중목표를 밝혀준 사상이다.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하나의 피줄을 순결하게 이어온 단일민족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대대로 한강로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결코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제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외제 강요한 민족분열로 인하여 조선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나온 력사는 통일만이 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천명하시면서 북남선언들을 무조건적으로 성실히 리행하는것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시었다. 북남선언들에 대해 논한다면 북과 남이 채택한 민족공동의 선언문들이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북남선언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동을 받았다. 이러한 북남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심각한 교착상태에 처하지는 않았을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자적위업에서는 커다

란 진전이 이룩되었을것이다. 북과 남이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이 한조항도 제대로 리행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기인되

### 북남선언들을 북제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는것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된 2018년에만도 무려 110여차례 되는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사실과 그후에도 해마다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합동군사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된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북남선언리행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민족문제에 자주적해결원칙을 천명한 북남선언들을 말로만 외우면서 얼마나 신의없이 행동하였는

가 하는것은 민족내부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녀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락자산을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보급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러면서도 파렴치하게 우

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를 걸고들고 지어 남들이 다 하는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느니 하는 딱지들을 잔뜩 붙여놓고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공세에 적극 동조하면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진공용어》로 쓰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과 반통일세력들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노린 대규모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광란

적으로 벌어져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의 우려를 자아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강도적이고 위험천만한 언동들은 다 민족공동의 실천강령인 북남선언들에 대한 배신행위로밖에는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의하여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괴해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북남선언들의 성실히 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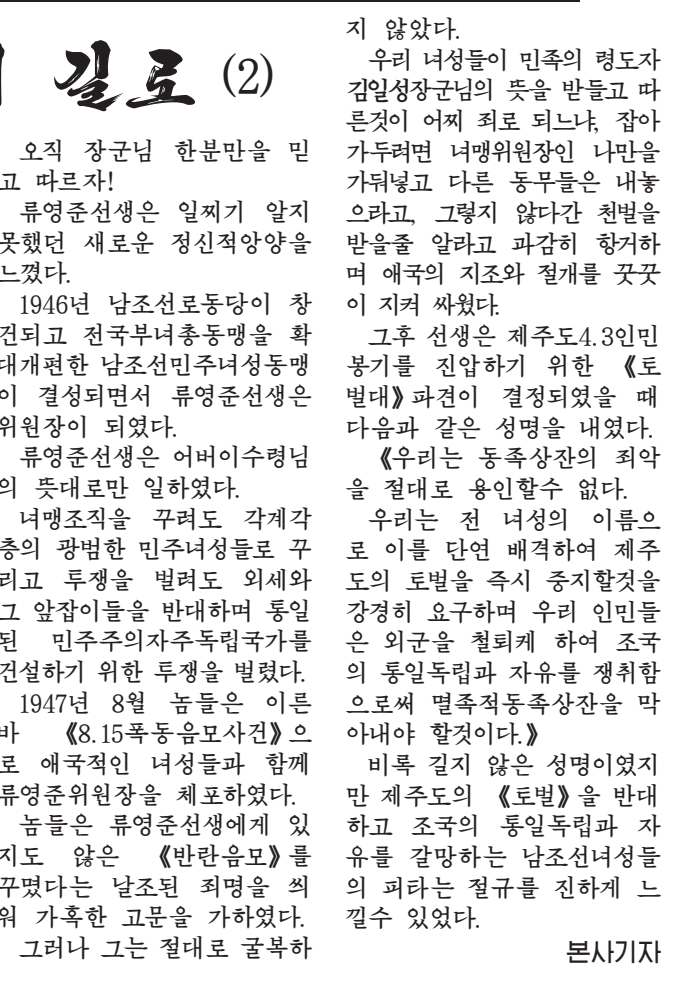
해외동포들속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지고있다. 총련의 어느 한 초중고급학교에서는 얼마전 고등학교무상화재만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한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앞에서는 조선학교차별을 반대하는가 시위투쟁을 벌려왔다. 한화협 뉴욕, 우리 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요인, 노동동, 평화를 위한 제향군인(뉴저지), 국제행동센터, 세계로동당 등 여러 단체들의 후원속에 35명

의 시위참가자들은 조선어, 영어, 일본어의 3가지 언어로 된 《일본은 조선학교차별을 중지하라!》, 《제일조선학교의 교육평등을 보장하라!》, 《일본정부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고 써넣은 횡단막을 들고 조선학교에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 제도를 즉시 적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6.15유족위원회 김수부대표는 민족통일의 대장정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조선학교차별문제에 해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해결을 위하여 다음에는 더 조직적인 시위를 준비할 입장을 밝혀왔다. 본사기자

한 녀성민주인사를 참된 애국의 길로 (2) 종갓고 이르시었다는것이였다. 편지에는 류영준선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남조선선맹이 창립되고 첫걸음을 땀어 한 시기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신생을 고민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바로 종파분자들이다. 장군님께서 종파분자들에게 필요한 조의를 취하시였으니 선생은 조금도 념려할것이 없다. 서울의 여름은 덥다고는 하는데 나이많은 몸 부디 조심하여 건강히 지내기를 바라다가 가슴뜨거운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안신호는 계속하여 김정숙녀사께서 장군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초기에 미제와 남조선분자들이 류선생을 회유하여 저들의 념성단체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는데 선생을 직무에서 떼는것은 반동정권에 선생을 넘겨주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

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대해서도 전해주었다. 류영준선생은 류영준선생은 능력도 없고 나뉘워 해 한 일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니 진정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불라 눈물을 적시었다. 이날 선생은 민족주의겨주의 동생이며 진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안신호가 공화국에서 높은 정치적신임을 받아 나맹간부로서 활동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들으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신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녀성들과 종교인들을 건국사업에 불리일으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믿을바에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하느님》을 믿어야지 미국의 《하느님》을 믿겠는가고 하시었다는 교시는 참으로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느님》을 믿을바에는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에서 고결화되어 온 숭비사대주의와 민족주의를 버리고 민족의 주체성을 뚜렷하게 살려나가야 한다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담긴 가르침이였다. 안신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공산주의에 대한 이전 날의 그릇된 인식을 털어버리고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온 민족을 위하는 특유한 공산주의라는데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굴복하





# 진정한 어머니품을 노래합니다

거목은 뿌리가 떠받들고 자라 올라간다.

자식이 거목이라면 어머니는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새싹을 틔우고 튼튼한 줄기와 무성한 잎새를 자라우며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함에 온갖 정성을 다 하면서 모진 광풍에도 나무가 끄떡없이 서있을 수 있도록 든든히 버티어주는 뿌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듯 합니다.

어머니!

자식들의 어엿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기울이는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을 헤아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식들의 리상사회와도 같은 나리의 조국,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고 강하고 정의로운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모습에서 찾아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으로 빛나는 것이며 참되고 진정한 어머니 품이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은 어머니들의 리상사회와도 같은 나리의 조국,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고 강하고 정의로운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모습에서 찾아봅니다.

## 1

무릇 어머니란 자식의 맑은 눈동자에 비끼는 이 세상의 첫 모습입니다.

《녀성은 연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피죽을 이은 자식앞에서 어머니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과 가정, 사회에 떳떳하고 부끄럼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잔혹한 아동학대와 이따기질대로 이리저리 여성들의 온갖 페르페타행위, 세상을 저주하며 벌어지는 모자, 모녀들의 비통한 자살소식을 어찌하게 들리오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머니란 존재는 무관심과 혐오, 싸늘한 행태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에 마음이 피로와 질 때면 저는 TV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국의 소식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면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밝고 화목한 조국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며 금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상쾌해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있게 보게 되는 것은 조국의 미래로 의젓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침마다 씩씩하게 학교길에 나서는 아이들, 《소나무》책가방과 《민들레》학습집, 《해바라기》학습품을 안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학생들, 학생소년군진들에서 희망과 재능의 노래를 활짝 퍼는 아이들,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모없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조국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나는 옥이원, 예육원과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의 원아들...

최근에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것제품을 공급해주는 류례없는 사업이 벌어진다는 감동깊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롭고 진실같은 화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늘이 이 밝게 키우며 마음껏 공부시켜 훌륭한 인재로 내세우고싶은 것은 어머니들의 소원중 첫째가는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온갖 비용 부담이 어머니들의 어깨를 지지러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맹목한 현실입니다. 설사 자식들을 그럭저럭 공부시키더라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조국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나는 옥이원, 예육원과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의 원아들...

최근에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것제품을 공급해주는 류례없는 사업이 벌어진다는 감동깊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롭고 진실같은 화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늘이 이 밝게 키우며 마음껏 공부시켜 훌륭한 인재로 내세우고싶은 것은 어머니들의 소원중 첫째가는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온갖 비용 부담이 어머니들의 어깨를 지지러도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맹목한 현실입니다. 설사 자식들을 그럭저럭 공부시키더라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 남 주 현

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말씀 어찌 찬탄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진정한 어머니들의 마음속 작은 생각까지 속속들이 헤아려 국가정책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실현시켜주는 이렇듯 고마운 정도자, 뜨거운 정치, 훌륭한 사회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머니수령님!

그분을 높이 모신 그때부터 우리 조국에서는 어머니들의 세기적 설움이 사라지고 천대와 무관리에 속해버린 어머니들이 지난 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존엄과 지위, 참다운 공지와 보람, 크나큰 행복을 한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의 천국을 건설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숭고한 품모를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에게서도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기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치지도록 세심히 보살피 주신분, 아이들의 학교길과 야영길을 지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군인가족들, 혁명적 군인가족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 식처럼 돌보아주는 어머니들,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 여성들을 해도 온갖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극단한 개인주의와 무제한한 탐욕으로 떠밀고있으며 그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들의 정과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키우는 사업을 수자와 동계로만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이 강요되는 온갖 악덕, 그로 인한 자식들의 비행과 설움을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정녕 가셔줄래야 가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입니까.

돌이켜보면 무정한 세월 한가정의 좁은 울타리안에서 2중3중의 속박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국여성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시절 자식을 낳아도 젓것차 변변히 먹여주지 않던 어머니들, 예지 중지 키운 딸자식을 일본군성도로 빼앗기고 가문의 피줄이라도 잊게 하려던 아들마저 징병, 징용으로 산골과 물결은 이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어 목놓아 통곡해야 하였던 우리 어머니들의 피눈물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가사는 이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심정으로 그대로 다 담은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조국의 해빛이 이역에 사는 우리 아들로 모두에게 어머니의 손길로 따사롭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 집안식솔입니다.》

조국에서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랑랑 울려 퍼질 때 여기 자본주의인본당에서도 민족교육의 종소리가 세세년년 울려 퍼지고 조선민족의 넋을 간직한 새세대들이 구김살없이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어머니조국이 걸출한 인재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일반민중들의 가혹한 탄압책동에 이르러 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입니다.

조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하던 어려운 때에 《재일동포자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동서고금에 없는 국가에산학금을 넣어주신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설처럼 대대손손 전해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 줄은 꿈에도 꿀 줄은 생각도 못했기요 라는 노래를 어린시절에도 불렀고 어머니가 되어서도 불렀으며 귀뚜라미 회전 오늘날에도 눈물속에 부르고 또 부르는 저희들입니다.

진정 눈에 흠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 수 있었습니까.

그 거역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일반당 곳곳에 새 교사가 일떠서고 수십만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익히며 애국위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역세게 자라났습니다.

주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의 성과는 전적으로 동무들이 사업을 잘한 결과에 이룩된 것이라고, 그 성과는 동무들이 애국사업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인 동시에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언제인가는 총련의 후대교육사업 하나만 놓고보아도 총련이 조국과 민족애에 얼마나 큰 위훈을 세웠는지, 지금 총련에서 민족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아주 잘하고있다고 높이 칭찬해주셨을 하시면서 감탄하셨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많은 어머니 어머 있었는가? 우리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 주며 천만 자식 영웅담게 키운 어머니 ...

어두고 자식들의 성장한 모습에 기쁨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우리 총련일군들을 떠받들며 내세워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은 수십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우리 수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안으시고 총련과 동포자녀들을 항상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계시었습니다.

우리 동포녀성들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겁고도 절절한 교시들을 늘 가슴속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헤마다 총련에 보내는 거역의 교육원조비에는 총련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것은 동포자녀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

총련의 후대를 키우는 일이라면 나는 나라의 재부를 다 보내 주고 싶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가 잊고 쓰지 않고 어디에 쓰지는 가.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라 면 아까울 것이 없다. ...

자식을 낳아 피죽을 이어주었다고 어머니라 하셨습니까.

키워주고 품어주고 보살피주며 정을 주어 어머니라 하셨습니까.

조국인민들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던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계속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대손손은 온정을 받아안았을 때 우리 동포어머니들의 심정을 얼마나 글로써 다 표현하기 어려웠는지.

어머니의 사랑은 대가를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진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다 합쳐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동포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는 오늘도 출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동포녀성들과 자녀들을 조국에 불러주시셨으며 조국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대회장에도 내세워주시면서 친정어머니의 다정한 정을 기울여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분회 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분회일군들은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고 동포자녀들을 총련의 바름, 애국과 선근정치로 새롭고도

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시간과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동포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멸의 금언입니다. 그의 말씀을 심장에 올리면 이역의 바람이 아무리 세차



《평등에 대한 열망》의 대결 양면

머저리로 침묵하면 현자로 될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를 알고 말해야 하고 말할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남조선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제 자신도 모르고 시도해도 모르는 그런 머저리에 속한다고 하겠다. 얼마전에 그가 의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공약이라는 것을 내뱉었다고 하는데 듣느니 대결약담이요, 음미할수록 머저리라고밖에 달리 평할수 없는 것이다. 그의 공약인 즉 현 당국의 《원칙이 없는 대북정책》을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으로 바꾸어 《북남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이른바 《한반도변환구상》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과제를 위한 《북의 개혁, 개방추진》과 미국과의 《포괄적전략동맹》 등 《한미동맹강화》이다. 거기에 따른 《안보》문제, 미국과의 《화강역지력강화》

문제 등 횡설수설하였지만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흡수통일》, 전쟁대결이다. 《흡수통일》과 전쟁대결은 그대로 이전 보수 《정권》들이 내외의 비난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죽을등살등 모르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친박한 무당의 입김에 들떠 《신통프로세스》나 《통일대박》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것들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인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되었다. 더우기 외세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주종하여 《합수작전》, 《집무실타격》과 같은 최악의 대결방법, 땅등을 일삼다가 남조선민심의 옹당한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이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전개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운용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역설한것은 지난 보수 《정권》의 대결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선언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윤석열의 《대북정책》이란 《흡수통일》으로 몰두하다가 북남관계를 불과불, 철과 철의 대결로 몰아가간 과거 보수 《정권》들을 풍자하는 광적인 동족대결, 전쟁대결책동의 《설계도》라고 락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때를 아는자는 침묵할 때를 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엄혹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최악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은 머저리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것들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시기와는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듯이 광고하고있으니 까마귀 백번 목욕해도 백로될수 없는것처럼 《동족대결당》, 《반통일당》, 《북침전쟁당》의 본성은 변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아직 만나본적도 없는 북을 상대로 주먹부터 내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북남관계의 현 경제국면을 더 험악하게 지속시킬수 있는 공약》이라고 규탄한것이 우연치 않다. 《북남관계를 박근혜정권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정치적화근덩어리》, 《리완용도 울고갈 투동매국노집단》. 이것이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들어서는 남조선 각계층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당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당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때이른 방역완화조치가 불러온 혼란

남조선사회가 때이른 방역완화조치로 인해 사회적혼란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방역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서 시작한 《단계적일상회복체계》시행과 관련한 무책임한 방역완화조치가 지금의 엄중한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한다. 자료가 의하면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취한 후 1주일동안 하루평균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2천여명, 중증환자수는 370여명, 사망자수는 거의 20명으로서 그 이전주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이 체계를 실시한 후 각종 집회와 시위건수가 대

폭 늘어나면서 양성전염병확산의 위험이 더 커지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실시한 이후 그전에 비해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훨씬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의료계의 부담도 가중되고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최악의 전염병상황을 피하지 못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스크착용의무화 등의 방역조치들이 문란해지면서 감염자수와 중증환자수, 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실시한 이후 그전에 비해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훨씬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의료계의 부담도 가중되고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최악의 전염병상황을 피하지 못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격이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튜진기재들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경유차들이었으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이미극한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구해왔은 현 당국이 특별대책반을 내운다. 해외에서 노소수를 긴급수입한다 북대소등을 피우고있지만 당장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수입원자재의 부족은 단지 노소수에 한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마그네슘과 수산화리튬, 희토류와 같은 희유금속 등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들여오고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특정국가들에 국한되어있고 그 품목만 해도 4,000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물자도 아닌 외국산노소수 하나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있다. 이것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진풍경이다. 수입주도형 경제에 피할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기형적인 원부자재수입의존상태에 대해 개탄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최근 미국의 주요인물들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며 대해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환성을 울리고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미국정부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며 미의회의 상원대표단 그리고 미국언론 《뉴욕 타임스》도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선거철마다 발작하는 미국의 로파심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남조선에서 선거철이면 태평양 건너에서 입김이 불어오고 검은손이 작용한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민심이 락인한것처럼 력대 남조선정치사에서 권력, 그것은 미국의 《검증》과 《승인》이 있어야 용이하다는것은 《정론》처럼 되어왔다. 2007년 미국이 《선거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 《대선》을 마후조종하였고 2012년에도 미국무성이 《대선》후보들의 《대북, 대미관》을 라진하고 《사상검증작업》을 벌인것으로 하여 여론화되었는 최근년간의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2017년에도 미국무성이 남조선정보원과 경제의 인물들

을 만나 《조기대선》과 다음이 《정권》과의 관계문제를 논의한 사실, 《포린 폴리시》,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미국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남조선정국에 대해 제 구미에 맞게 여론전을 펼친 레토도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인물들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 한 소리들을 쥐어짜면 남조선미국간의 《동맹강화》와 경제협력문제라고 한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의 《대선》후보들에게 《동맹강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리수단을 위해 남조선의 다음기 권력을 제 마음대로 주무려는 안하무인, 남조선민심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방자의 폭행이라고 비평하였다.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대통령》.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이전 보수 《정권》들의 친미사대적, 노예굴종적인 태도를 보면서 터친 울분이고 분노이다.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미국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는다

국성인가.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에 차치하는 남조선의 지정학적, 정치, 군사적특성때문일 것이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조선반도를 아시아체제를 위한 《단검》, 《교도보》, 《정검다리》로 여겨왔다. 이를 위해 남조선을 계속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지배하려고 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의 《미래전력》이 될수 있는 《대선》후보들의 《대미충성도》를 라진하는데 신경을 쓰고있는데 그들의 지배주의목적들을 손쉽게 이루 어보기 위해서이다. 지금 미국의 태도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은 오직 자국의 리수단을 위해 남조선의 다음기 권력을 제 마음대로 주무려는 안하무인, 남조선민심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방자의 폭행이라고 비평하였다.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대통령》.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이전 보수 《정권》들의 친미사대적, 노예굴종적인 태도를 보면서 터친 울분이고 분노이다.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미국

의 거만과 탐욕, 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것이 식민지화수단의 어쩔수 없는 운명일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경제올가미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주요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미국의 압력으로 주요기업들이 대미투자확정을 위한 논의를 벌여놓는데 대해 그것은 미국기업들의 배반 물러주는 어리석은것이라고 평하였다.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수출 주도형의 남조선경제의 취약성이 날아간 드러나고있고 하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은 자체로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남조선을 비롯한 반도체생산업체들의 군기를 잡으면서 마치 미국의 회사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며 대미투자자의 확대는 결코 출로가 될수

단평 뒤골방 쪽덕공론

남조선의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원》이 《2022년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는것을 가졌다고 한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라는것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남조선군의 운영체제점검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실속있는 발전 등이라고 한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가옥소리라는 속담그대로이다. 《국가전략연구원》이라는것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던자가 원장을 하고 그야말로 군부와 외교안보분야에 종사하던 어중이떠중이들, 말하자면 친미사대와 굴종적업으로 하고 분별과 대결에 기생하던자들이 그 연장으로 만들어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원장이라는자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면서 《도발원천, 지원력, 지휘체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것》,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을것》이라고 설파한 대결광신자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업으로 삼다못해 동족을 향해 불질하기를 능사로 하던 자들과 《신통프로세스》, 《드레즈덴션》과 같은 케변을 들고다니며 지지를 구걸하던것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는가야 변하

지 않는가. 가관은 그들이 그 누구의 《능력》과 《전술》에 맞게 남조선군의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한것이다. 돈일만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늘의 전부인줄 아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가련한 울음소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퍼주고 끌어들이던 첨단무장장비들을 갖추었다고 우쭐거리며 《단호한 응징》을 운운하고있으니 손잡이나 장난하던 철없는 아이가 긴칼을 찌다고 빠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하는것들도 토론회라는데 코를 틀어미밀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윤석열이 떠벌린 《흡수통일》, 전쟁대결의 《대북정책》에 관여했으리라는것은 두말할것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 토론회라것이 북남관계나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결과 긴장격화를 추구하는 보수세대의 모의관이었다는것은 분명하다.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들이 군사적, 전략적력세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빌려놓은 뒤골방이라는 장소로 쫓겨나고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광혁

청년층을 또 속여보려고

남조선에서 여야당세력들이 20, 30대 청년층정찰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공유주택》 방문, 청년간담회진행 등을 편이 벌려놓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호감을 사보려고 예를 쓰는 한편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조직》을 내오고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기본주택공급》을 비롯한 청년정책공약들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메들은 《청년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참가한다. 야구경기장에 나타나 청년들을 응원한다고 엉너리를 치는가 하면 철면피하게도 《투권과 반칙 근절》,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입시와 취업기회보장》 등을 요란스레 광고해대며 어떻게 하나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0, 30대 청년층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하고있

으며 어느 당이 그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데 따라 다음해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것이라고 보도한것을 감안하면 여야정적세력들이 왜 이런 열연 정찰행동을 벌이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여야당의 경제적 인 구애놓음은 청년들의 사늘한 배척에 부딪히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연합뉴스》, 《내성신문》 등은 청년층의 대다수가 《폐쇄하고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인들은 믿을것이 못된다》, 《청년을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기득권정치세력, 여도 야도 싫다》는 비난과 경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누구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된 후 20, 30대의 탈당이 급증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윤석열은 120시간로동제, 부정식품, 전두환호호발언까지 막말을 자

처한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장당원, 역선택을 운운하는 보수편대는 보기도 싫다》라고 비난과 항의를 하고있는데 대해 전하고하였다. 남조선의 정치평론가들은 여야당의 청년층공략을 두고 《상황이 급하거나 말이 안되는 청년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이런걸로 청년들을 전혀 설득할수 없다》, 《청년세대는 장기적으로 희망을 가질 공약 내걸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그런 공약을 내는 후보가 없다》고 개탄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일자리와 생계보장 등 청년들이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생존권보장과 관련한 생활정치개선에 대해서는 불보듯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세 살점을 매줄듯이 기만적인 공약광고와 심심성정책선전으로 청년층의 환심과 지지를 얻어보려는 표리부동한 자문에 대한 청년들의 환멸과 저주는 날이 갈수록 더해질것이라고 예명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

— 서울에서 전국로동자대회 진행 —

남조선언론들이 지난 주 추모회의 주도하에 《전태일렬사 정신계승 2021전국로동자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들의 구호는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이라고 한다. 《불평등세상을 뒤집는 투쟁》의 시작을 알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로지 《로동자들의 투쟁만이 불평등세상을 뒤집고 평등사회를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로동계급은 정권과 자본가들의 탄압과 억압을 뚫고 굴함없이, 물러섬이 없이 전진할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어느 한 발언자는 《기민과 배신의 보수정당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 로동자들이 대신을 주도해 평등세상을 만들자》, 《로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행동공동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불평등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있다》고 하면서 《로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사회적불평등을 혁파하고 로동자민중이 승취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5년전 로동자들이 초불혁명의 선봉에 섰듯이

우리가 사회적불평등에 맞서는 초불대행진을 만들자》고 하면서 앞으로 빈민대회, 민중총력대회를 힘차게 성사시킬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집회에는 민주로총과 함께 5개 진보정당(로동당, 녹색당, 사회혁신로동자당, 정의당, 진보당)도 참가하여 경제민주화실현, 사회적소수자 인권보장, 조선반도평화체제실현 등 10가지 선언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참가자들은 《우리는 51년전 로동자대투쟁의 세력사를 열어제끼던 전태일렬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등사회의 대전환,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대전환투쟁을 선언한다》, 《자본과 그와 결탁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로동자민중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전진할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향기

바람결을 타고 구수하게 풍겨오는 밤과 고구마향기는 밤새, 알숙이 새노랑계 익은 군밤과 김이 문문 나

는 군고구마를 훌훌 불며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 어딜 가나 볼수 있는

평양의 풍경이다. 어느 때나 그러하듯이 평양역앞에 위치하고있는 중구역채과매소의 군밤, 군

손에 쥐어주고 호뭇하게 바라본다. 김이 문문 나는 군고구마를 맛보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부부며 자식

들에게 주려는듯 군밤, 군고구마를 여러 봉지나 사든 내인, 고소하면서도 따끈한 그 맛이 하도 좋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중년의 남자들...



중구역 역전동에 산다는 최정옥 할머니는 《군고구마는 이렇게 구워내자마자 먹어야 제맛이 난단다.》라고 하며 절절을 절반쯤 벗긴 군고구마를 손자의

《이 대대에서 구운 고구마는 언제 봐야 별맛입니 다.》 《이곳 봉사원들의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추고받는 손님들의 찬사에 신바람이 나는듯 봉사원들도 쟁쟁히 일손을 놀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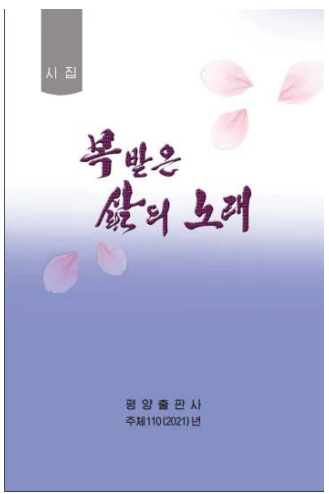
## 민족유산보존사업에 힘을 넣어



민족유산에는 물질유산과 함께 비물질유산 그리고 보통강약수와 같이 자연유산도 있다. 보통강약수가 주변환경과 더 잘 어울릴수 있도록 꽃관목들과 수종이 좋은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심었다. 수심m의 석축공사도 진행하고 휴식

## 시집 《복받은 삶의 노래》

평양출판사에서 시집 《복받은 삶의 노래》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시집에는 시 《축복받은 새해 2021년여》, 서사시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리라》, 시 《운명의 하



## 심원사

연탄군의 자비산중턱에 고려시기의 사찰인 심원사가 있다. 심원사를 처음 세운 년대는 명확치 않으나 증심전물인 보광전은 1374년에 크게 고쳐짓고 그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고 한다.



소설은 눈이 조금씩 내린다. 소설날 평양지방에서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상용시간)은 각각 7시 28분, 17시 19분이고 낮길이는 9.85시간이다. 소설날 평양에서 진정오는

윤봉길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해에서 해외침략에 날뛰던 일제의 고위급인물들을 살상한 폭탄투척사건의 주인공이다. 1908년 5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의 자그마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7살에서당공부를 시작해서 12살에 벌써 일본의 식민지노예교육을 거부하여 덕산공립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그후 그는 《월진회》라는 조직을 내고 야학을 운영하면서 농업증산운동을 벌였으며 《농민독본》도 썼다. 1928년에 그는 야학에서 일본경찰의 만행을 폭로한 풍자극을 창작발표한것이 죄가 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악착한 고문을 받았다.

## 윤봉길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떠날 때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글을 남기고 고향을 떠났다. 독립을 위한 뚜렷한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그는 상해혁명정부에 발탁되어 《한인애국단》에 가맹하였다. 1932년 1월 《상해사변》이 일어난 후 일제는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천장절》기념식을 요란하게 해서 저들의 힘과 무력을 과시하려 하였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윤봉길은 1932년 4월 29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홍구공원으로 떠났다. 행사가 끝날 때쯤 되자 그는 불려진 사람들을 비집고

## 천연기념물 백암검은물

이 지역은 백두산줄기의 누른봉(2 033m), 백사봉(2 102m)과 같은 높은 산들이 잇닿아있고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마가목 같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돌각담, 진대나무, 나무구새통 등이 많다. 이곳에는 또한 여러가지 귀뱀, 철서류, 산도끼, 개구리, 뱀, 새 그리고 박쥐수와 그 지류에 멸종기가 많다. 검은물은 조선의 특산야생이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고급원기증수으로서 그 리용 가치가 높으므로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 가운데는 건넵이것담그기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물고기나 조개, 물고기의 알과 내장을 소금에 절구어 양념하여 삭힌 것 같은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역사문헌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물고기내장으로 젓갈을 담그어먹었다. 이러한 식생활관습은 고려시기에 그대로 이어져 당시 일반주민들의 밥상에는 물론 국가적인 연회나 제상에도 젓갈이 놓이었다고 한다. 담근 젓갈들은 그대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혹은 국이나 김치, 지지개, 찜개와 같은 음식에 조금씩 넣어 맛을 돋구기도 하였다. 평안도를 기본으로 한 서

## 보쌈김치 (1)

보쌈김치는 조선중서부 개성지방의 민족특산음식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무우와 배추를 썰어서 양념한것을 배추잎에 싸서 국물과 함께 독에 넣어 익힌 김치이다. 김치는 김치이되 보자기에 싸듯이 한 김치라는 뜻으로 보쌈김치라고 일러오는 것이다. 이 김치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세상에 전해졌으며 어떻게 시대에 더불어 변천되어 왔는가를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 백암검은물

백암검은물은 량강도 백암군 박천로동자구일대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검은물은 조선의 특산야생이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고급원기증수으로서 그 리용 가치가 높으므로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 집을 서로 바꾸다

한 량반집을 가운데 두고 왼쪽집에는 목수가, 오른쪽집에는 대장장이가 각각 세를 내고 들어왔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두집에서 풀무질, 마치질, 대패질, 톱질, 못질 등을 하다가니 그 소리에 량반은 그만 불면증이 생겼고 하루바삐 그 두사람을 댄 곳으로 내보내라고 집주인들에게 호통질이 그칠새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대장장이와 목수가 량반을 찾아왔다. 《그동안 동네를 시끄럽게 한 일을 백번 사죄하오며 분부대로 곧 집을 옮기겠습니다.》 이에 량반은 《야단을 했

개성 동대문을 나서서 동북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월교리라는 동네가 나있다. 나무가 울창한 깊은 산골인데다가 땅이 척박하여 이 마을사람들은 혼한 나무로 숲을 굵거나 뿔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왔다. 조선봉건왕조초에 이 마을에 고분이라고 부르는 마을세 착하고 고운 여인이 앞

의 좋은 살기조건과 먹이를 쉽게 얻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어 조선에서 대표적인 검은돈살이리로 되어있다. 검은돈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숲속의 돌각담, 나무구새통, 진대나무 밑에 등지를 들고 산다. 검은돈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숲속의 돌각담, 나무구새통, 진대나무 밑에 등지를 들고 산다.



《주지스님이 댁에 김치맛을 보더니 천하미라 하면서 그 김치가 없는 밥을 먹을수가 없다고 하니 그 김치 한포작을 집어 어머니입에 넣어드려왔다. 《어머니, 이 김치맛 좀 보세요.》 가로세로 묶은 버질오래기를 풀 다음 살근살근 보쌈을 해치고 노릇노릇 익은 김치 한포작을 집어 어머니입에 넣어드려왔다.